

#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문화·여가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Social,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Current State and Policy Implications

이민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실태를 보면 장애인의 4.5%는 지난 한 달 동안 전혀 외출하지 않았으며, 집 밖 활동 시 46.6%가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 한 해 영화를 관람한 경우는 24%로 전체 인구의 영화 관람 경험 61%에 비해 낮았고, 문화·여가활동의 만족 수준은 49.3%로 여전히 장애인의 과반은 불만족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만족스러운 사회활동과 문화·여가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대중교통에서의 편의 증진 방안과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개선 논의를 소개하고 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을 위한 제안, 투표 참여에 필요한 지원 등의 정책 제안 및 실천적 제안을 하였다.

## 1. 들어가며

장애<sup>1)</sup>는 신체·정신적 장애(impairment)에 대한 환경의 적절한 대응 부재로 인한 장애(disable) 경험으로 볼 수 있다. 사회 및 문화·여

가활동은 공간의 설계, 이동 편의 지원, 외출 지원, 의사소통 지원, 장애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문화활동) 제공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설 및 정보에 대한 장벽을 없애는 환경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1) 이 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제시하는 15개 장애 유형을 중분류인 외부신체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장애(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로 구분하였다. 경험하는 제약의 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과 사회적 지원 경로의 구분을 고려하여 외부신체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관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199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5) 등의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실태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적인 외출, 대중교통 이용, 문화 공연 관람 등의 현황과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 어려움, 불만족의 수준을 보여 준다. 개별 장애인의 경험에 대한 실증적 점검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만족스러운 사회활동과 문화·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장애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편리한 환경 조성이라는 이상을 향한 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정책 및 실천적 노력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 2. 장애인의 사회활동

### 가. 장애인의 사회활동

사회활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activity)은 외출이라고 할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84.4%가 혼자 힘으로 외출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은 약 61%만 혼자 외출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장애인의 외출 가능 여부에는 외출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이용이 포함된 것이지만, 보행의 어려움, 감각장애에 따른 활동 제약 등의 물리적 어려움을 비롯하여 인지적 장애 혹은 돌발적 문제행동 등이 예상되어 혼자 외출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이 지난 1개월간 얼마나 자주 외출을 하였는지는 사회활동의 단면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장애인의 70.1%는 거의 매일 외출을

표 1. 혼자 외출 가능 여부

(단위: %)

구분	외부신체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 기관장애	전체
	지체·뇌병변·안면장애	시각·청각·언어장애	발달장애 (지적·자폐성)	정신장애		
예	85.6	89.6	61.4	81.7	88.9	84.4
아니요	14.4	10.4	38.6	18.3	11.1	1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외부신체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2)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3) 내부기관장애 - 심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이하 동일)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함.

표 2. 지난 1개월간 외출 빈도(장애 유형별)

(단위: %)

	외부신체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 기관장애	전체	
	지체·뇌병변·안면장애	시각·청각·언어 장애	발달장애 (지적·자폐성)	정신장애			
외출함	거의 매일	69.8	74.5	75.9	54.6	57.6	70.1
	주 1~3회	19.2	17.9	14.6	23.9	34.3	19.5
	월 1~3회	5.8	5.4	6.0	9.6	5.8	5.9
전혀 외출하지 않음	5.2	2.2	3.5	11.8	2.2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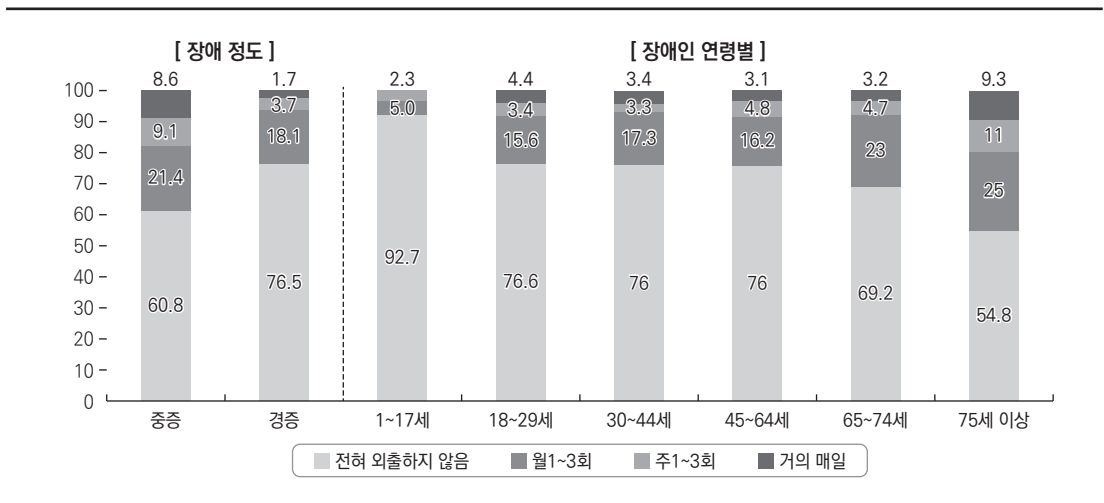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함.

했고 19.5%는 일주일에 1~3회, 약 6%는 한 달에 1~3회 외출했으며, 4.5%는 지난 1개월 동안 한 번도 외출을 하지 않았다. 전혀 외출하지

않은 비율은 정신장애가 11.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지체·뇌병변·안면장애로 5.2%였다. 지난 1개월간의 외출 빈도를 장애 중증도 및

그림 1. 지난 1개월간 외출 빈도(장애 정도, 장애인 연령별)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함.

연령별로 볼 때, 전혀 외출하지 않은 비율은 중증 장애(장애등급 1~3급)가 8.6%로 경증 장애(장애등급 4~6급)의 1.7%에 비해 높았다. 연령별로는 학령기를 포함한 연령의 매일 외출 비율이 92.7%로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출 빈도가 주 1~3회 혹은 월 1~3회인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75세 이상은 전혀 외출하지 않은 비율이 9.3%로 급증하여 75세 이후의 연령 증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외출의 주된 목적은 통근이나 통학이 37.8%로 가장 높고, 산책과 운동을 위한 외출이 29.9%, 병원 진료가 12.1%, 친척·친구·이웃을 방문하기 위한 외출이 8.7%, 복지관 등 지역사회시설의 이용과 행사 참여가 6.5%로 나타났다.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내부기관장애는 병원 진료가 33.9%

로 가장 높고, 정신장애는 통근·통학을 위한 외출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산책과 운동을 위한 외출은 44.7%로 가장 높았다. 학령기 비율이 높은 발달장애의 경우 통근이나 통학을 위한 외출이 54.0%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산책이나 운동을 위한 외출은 19.9%로 가장 낮았다. 외출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시설 이용이나 행사 참여인 경우는 발달장애, 정신장애, 시각·청각·언어장애가 높았다.

지난 한 달간 한 번도 외출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로는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가 7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외출 도우미가 없어서' 외출하지 않았다는 경우가 12.0%였으며, '본인이 외출하고 싶지 않아서'가 7.8%였다. 지체·뇌병변·안면장애는 장애 때문에 몸이

표 3. 외출의 주된 목적(지난 1개월 기준)

(단위: %)

	외부신체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 기관장애	전체
	지체·뇌병변·안면장애	시각·청각·언어 장애	발달장애 (지적·자폐성)	정신 장애		
통근·통학	38.9	36.3	54.0	17.3	20.2	37.8
병원 진료	12.7	8.4	3.9	12.4	33.9	12.1
쇼핑	3.4	3.6	4.8	8.0	5.5	3.8
산책·운동	29.3	32.5	19.9	44.7	32.2	29.9
친척·친구·이웃 방문	9.1	10.0	6.2	5.2	5.6	8.7
지역사회시설 이용 및 행사 참여	5.4	8.0	10.7	10.7	2.6	6.5
일자리 구하기	0.6	0.4	-	0.2	-	0.5
기타	0.7	0.9	0.5	1.6	0.1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함.

표 4.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지난 1개월 기준)

(단위: %)

	외부신체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 기관장애	전체 장애인
	지체·뇌병변·안면장애	시각·청각·언어장애	발달장애 (지적·자폐성)	정신장애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 부족	-	-	9.2	-	-	0.6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82.6	59.9	62.4	34.4	42.0	72.7
외출도우미가 없어서	8.7	18.6	13.8	23.1	23.5	12.0
시간이 없어서	-	4.8	-	-	-	0.5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3.5	13.6	14.6	28.4	-	7.8
주위의 시선 때문에	0.6	-	-	-	-	0.4
기타	4.6	3.0	-	14.1	34.5	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함.

불편해서 외출하지 않은 경우가 82%로 가장 많았고, 외출에 동행할 도우미가 없어서인 경우는 내부기관장애(23.5%), 정신장애(23.1%), 시각·청각·언어장애(18.6%)에서 높았다.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외출하지 않은 비율은 정신장애가 가장 높았다.

장애인에게 집 밖 활동이 불편한지를 물었다. 불편하다(매우 불편하다 + 약간 불편하다) 46.6%, 불편하지 않다(거의 불편하지 않다 + 전혀 불편하지 않다) 53.4%로 불편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긴 했지만,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장애인은 집 밖 활동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집 밖 활동이 불편하다는 비율은 발달장애(58.1%)가 가장 높았다.

집 밖 활동이 불편한 이유는 장애 관련 편의시설 부족이 49.7%로 가장 높았고, 외출 시에 동반자가 없어서 26.9%, 의사소통의 어려움 11.0%, 주위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하여 불편하다는 경우 10.6%였다. 장애 관련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은 지체·뇌병변·안면장애(63.7%), 내부기관장애(59.8%), 시각·청각·언어장애(33.3%)에서 높았으며,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서 불편한 경우는 발달장애(48.0%), 정신장애(39.2%)에서 높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함은 시각·청각·언어장애(31.3%)와 발달장애(31.9%)가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타인의 시선으로 인한 불편함은 정신장애(35.9%)에서 높았다.

표 5. 집 밖 활동 시 불편 정도

(단위: %)

	외부신체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 기관장애	전체 장애인
	지체·뇌병변·안면장애	시각·청각·언어장애	발달장애 (지적·자폐성)	정신장애		
매우 불편하다	13.2	9.8	22.0	6.4	15.5	13.1
약간 불편하다	35.2	30.7	36.1	27.9	27.3	33.5
거의 불편하지 않다	37.3	43.1	30.4	43.2	45.3	38.7
전혀 불편하지 않다	14.4	16.3	11.5	22.4	12.0	1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함.

표 6. 집 밖 활동 시 불편을 느끼는 주된 이유

(단위: %)

	외부신체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 기관장애	전체 장애인
	지체·뇌병변·안면장애	시각·청각·언어장애	발달장애 (지적·자폐성)	정신장애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	63.7	33.3	3.6	12.1	59.8	49.7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서	22.6	27.8	48.0	39.2	25.1	26.9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10.3	5.8	15.9	35.9	9.0	10.6
의사소통의 어려움	1.5	31.3	31.9	12.8	1.9	11.0
기타	1.8	1.8	0.7	0.0	4.2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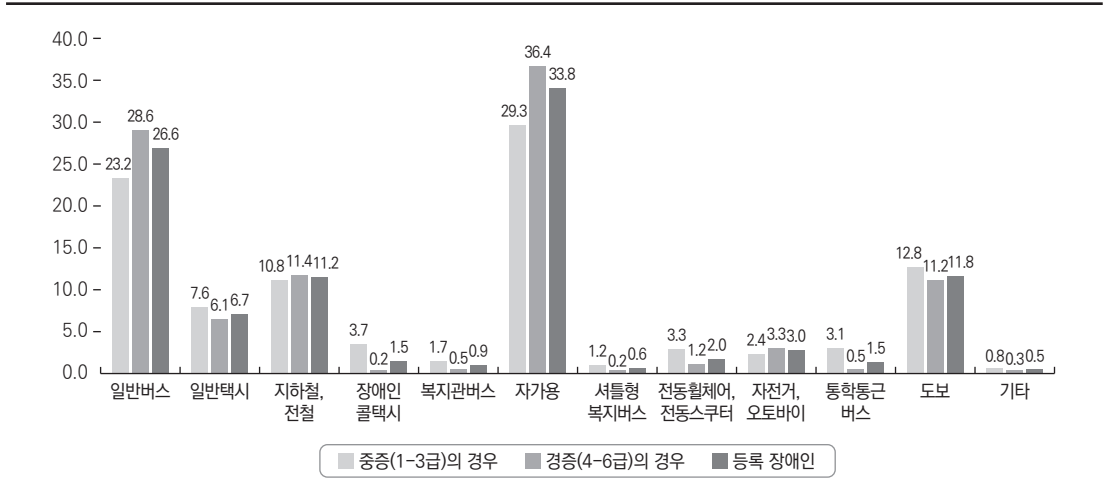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33.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버스(26.6%), 지하철·전철(11.3%), 일반택시(6.8%) 순이었다.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중증인 경우 역시 자가용(29.3%), 일

반버스(23.2%) 이용이 많았고, 그다음에 일반택시(7.6%), 장애인콜택시(3.7%), 통학·통근버스(3.1%), 복지관 버스(1.7%) 순이었다. 경증 장애인의 주된 교통수단은 자가용(36.4%), 일반버스(28.6%), 지하철 및 전철(11.4%), 일반택시(6.1%) 등의 순이었다.

그림 2. 등록 장애인의 주된 교통수단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함.

표 7.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 정도

(단위: %)

	외부신체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 기관장애	전체 장애인
	지체·뇌병변·안면장애	시각·청각·언어장애	발달장애 (지적·자폐성)	정신장애		
매우 어렵다	13.0	8.9	17.8	6.1	9.4	12.1
약간 어렵다	27.0	21.6	22.0	15.8	21.4	24.7
거의 어렵지 않다	41.1	50.1	46.5	47.1	50.2	44.3
전혀 어렵지 않다	18.8	19.4	13.7	30.9	19.0	1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함.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장애인의 36.8%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63.2%였다. 특히 지체·뇌병변·안면장애(40.0%)와 발달장애(39.8%)가 교통수단을 이용

할 때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어려운 주된 이유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기 불편해서가 64.4%로 높았으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해서

가 18.3%, 지하철 편의시설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14.6%였다. 어려움을 느끼는 지체·뇌병변·안면장애인의 약 70%, 시각·청각·언어장애인의 약 60%는 버스와 택시 이용 시 불편하다고 하였으며, 발달장애인(30.8%)과 내부기관장애인(24.4%)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해서 불편하다고 하였다.

성인 장애인 중 현재 자동차 운전을 하는 비율은 전체의 4분의 1을 다소 넘는 28.7%로, 많지 않았다. 이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에서 장애 편의성 도모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 앞으로 장애인의 운전면허증 획득과 이후 차량 운전에서 필요한 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 8. 장애 유형별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주된 이유

(단위: %)

	외부신체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 기관장애	전체 장애인
	지체·뇌병변·안면장애	시각·청각·언어 장애	발달장애 (지적·자폐성)	정신장애		
버스, 택시 불편	69.4	59.9	43.6	65.5	54.5	64.4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	13.9	17.1	14.6	2.9	19.2	14.6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부족	15.8	18.7	30.8	22.3	24.4	18.3
장애에 맞게 개조된 차량 및 운전면허증 확보의 어려움	0.5	1.3	0.7	4.1	0.0	0.7
기타	0.4	3.0	10.3	5.3	1.9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함.

표 9. 성인 장애인의 운전면허증 소지율과 자동차 운전을 하는 비율

(단위: %)

	외부신체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 기관장애	전체 장애인
	지체·뇌병변·안면장애	시각·청각·언어 장애	발달장애 (지적·자폐성)	정신장애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48.0	38.3	5.0	27.0	55.1	42.4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경우	33.6	26.4	1.4	3.6	36.7	28.7

주: 만 18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함.



나. 장애인의 투표

참정권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사회참여를 위한 중요한 부분으로 장애인의 참정권은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만 19세 이상 장애인의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한 비율은 84.1%로 전국 투표율 77.2%에 비해 낮지 않았지만, 발달장애인은 60.9%, 정신장애인은 66.1%로 투표 참여율이 낮았다.

표 10.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여부

(단위: %)

	외부신체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 기관장애	전체 장애인
	지체·뇌병변·안면장애	시각·청각·언어 장애	발달장애 (지적·자폐성)	정신장애		
예	85.4	90.1	60.9	66.1	86.8	84.1
아니요	14.6	9.9	39.1	33.9	13.2	1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만 19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함.

표 11. 투표하지 않은 이유

(단위: %)

	외부신체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 기관장애	전체 장애인
	지체·뇌병변·안면장애	시각·청각·언어장애	발달장애 (지적·자폐성)	정신장애		
교통이 불편해서	0.7	3.0	1.0	-	-	1.0
편의시설 부족	1.2	1.7	1.0	3.5	0.0	1.4
몸이 불편해서	69.1	55.6	27.7	34.1	55.5	56.7
도우미가 없어서	1.9	6.5	10.0	2.2	-	3.8
정보가 부족해서	0.3	0.2	6.3	-	1.4	1.3
시간이 없어서	4.5	4.6	1.0	2.8	1.5	3.7
하고 싶지 않아서	20.7	25.2	42.7	48.3	40.5	28.3
주위 시선 때문에	0.3	0.6	5.7	5.1	1.2	1.7
기타	1.3	2.6	4.6	3.9	0.0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함.

투표하지 않은 경우 주된 이유는 몸이 불편해서가 56.7%로 절반 이상이었고, 투표하고 싶지 않아서가 28.3%로 약 85%는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 투표 의사가 없어서 참여하지 않았다. 이외에 도우미가 없어서(3.8%), 주위 시선 때문에(1.7%), 편의시설이 부족해서(1.4%), 정보가 부족해서(1.3%), 교통이 불편해서(1.0%) 등의 이유가 있었다.

이와 같이 투표하지 않은 장애인 중 약 9%는 장애인 투표를 위한 지원 및 인식 부족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시각·청각·언어장애인 미투표자의 6.5%, 발달장애인 미투표자의 10.0%는 도우미가 없어서 투표하지 않았고, 발달장애인 미투표자의 6.3%는 정보가 부족해서 투표하지 않았으며, 발달장애인 미투표자의 5.7%, 정신장애인 미투표자의 5.1%는 주위 시선 때문에 투표하지 않았다.

### 3.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

문화와 여가활동에서 장애로 인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 상영<sup>2)</sup>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은 전 국민에 비해 소극적인 활동에 머물고, 문화·예술 공연 등의 관람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 1주일간의 여가활동 내용을 보면 장애인 중 TV 시청을 한 경우는 96.6%,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은 30.5%, 사우나 등 휴식을 취한 경우는 44.3%였다. 친구나 친척을 만나고 모임에 참석한 사교일은 51.4%, 가족 관련 외식 등에 참여한 경우는 34.3%였다. 사회(봉사)활동이나 종교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17.8%였으며, 지난 1주일간 스포츠활동을 한 경우는 8.5%였다. 영화·연극을 관람한 경우는 6.4%, 자기계발활동(자격증 습득을 위한 활동 등)을 한 경우는 6.2%, 독서 모임이나 사진 촬영 등 문화·예술활동을 한 경우는 3.5%로 관람을 비롯한 각종 문화활동을 한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국내 여행을 다녀온 비율은 6.8%,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는 5.5%로, 해외여행을 한 비율은 지난 조사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전 국민의 지난 한 해 해외여행 비율(16.3%)에 비하면 3분의 1이 채 못 되는 수준이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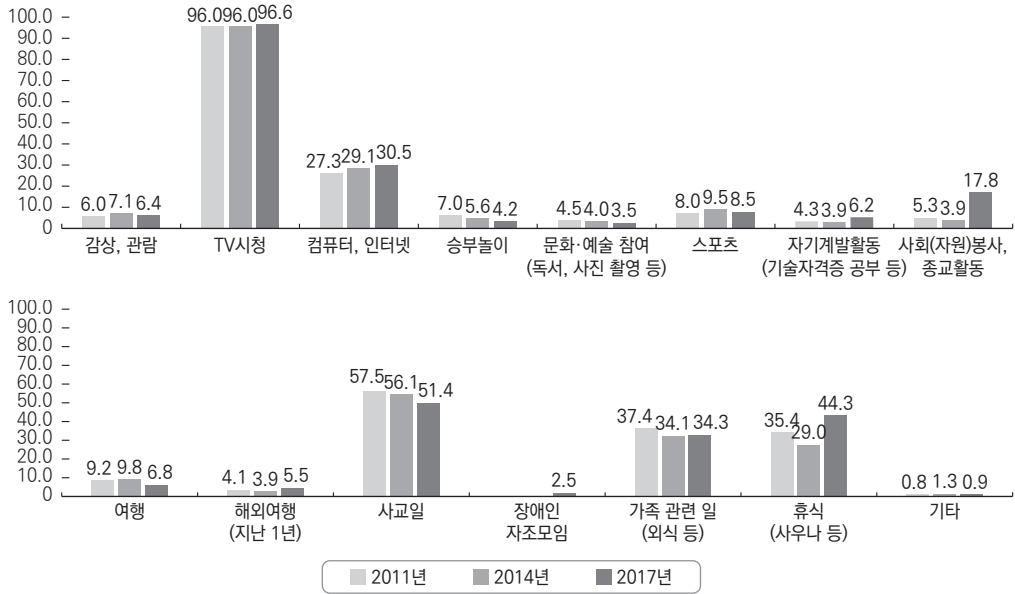
장애인 중 지난 1년간 영화를 관람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4.0%, 영화 이외의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한 사람은 7.2%로, 전 국민의 지난 한 해 영화 관람 비율인 61.6%와 차이를 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2)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은 시각·청각장애인단체가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일부 영화를 선정하여 극장에서 상영시 화면 해설 및 한글 자막을 제공함으로써 시각·청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장벽 없이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조사 기간은 지난 한 해 기준), 여가 시간의 주된 활동으로 TV 시청 95.8%, 친구 만남·동호회 모임 참석 80.0%, 가족 및 친지 방문 65.2%, 종교활동 21.0%, 사회봉사활동 6.5%, 자연 명승지 및 풍경 관람 43.0%, 해외여행 16.3%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그림 3. 장애인의 지난 1주간의 문화·여가활동(2011년, 2014년, 2017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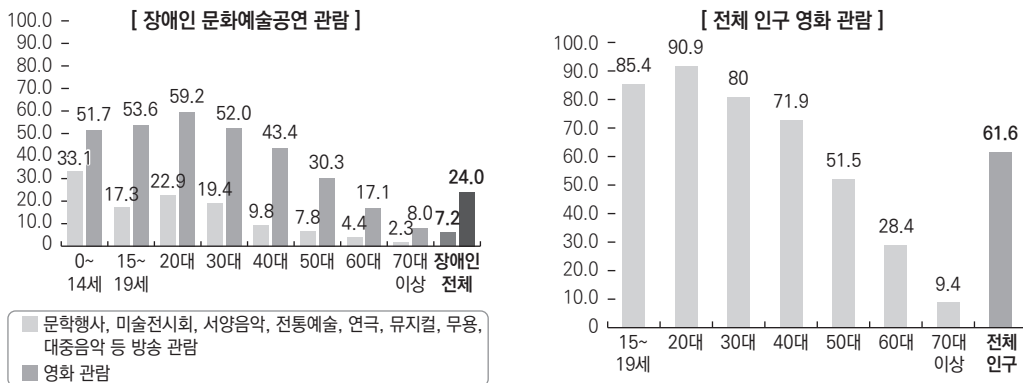


주: 중복 응답.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그림 4. 지난 1년 동안의 문화·예술 공연 관람 및 영화 관람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문화체육관광부(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2018. 9. 4. 인출.

표 12.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단위: %)

	외부신체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 기관장애	전체 장애인
	지체·뇌병변·안면장애	시각·청각·언어장애	발달장애 (지적·자폐성)	정신장애		
매우 만족한다	3.3	5.6	4.7	4.3	3.4	4.0
약간 만족한다	44.4	47.8	48.6	40.8	43.6	45.3
약간 불만이다	39.2	38.3	32.8	43.3	38.1	38.5
매우 불만이다	13.1	8.3	13.9	11.6	14.9	1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함.

문화·여가활동에 대해 장애인의 49.3%는 만족한다고 하였고 50.7%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비록 절반 이상이 불만족하지만 2014년에 비해서는 만족 비율이 증가했다(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문화·여가활동 만족 비율은 42.9%).

표 13. 문화·여가활동에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

(단위: %)

	외부신체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 기관장애	전체 장애인
	지체·뇌병변·안면장애	시각·청각·언어장애	발달장애 (지적·자폐성)	정신장애		
경제적 부담 때문에	29.0	28.1	21.3	21.5	30.9	28.0
시간 부족	12.2	11.3	4.7	5.4	2.7	10.6
교통 혼잡, 이용 교통수단 불편	11.5	5.0	1.0	2.5	4.2	8.5
도우미가 없어서	1.8	2.5	13.1	7.6	1.6	3.1
여가시설 부족	1.2	2.6	2.2	1.7	0.2	1.5
여가시설 내 편의시설 부족	0.9	0.9	1.2	0.0	0.0	0.9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1.6	2.6	12.6	5.5	1.5	2.8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8.0	12.1	15.0	25.1	3.6	9.9
건강이나 체력이 부족	32.4	24.3	6.1	22.6	53.5	29.4
의사소통 어려움	1.3	10.2	22.8	8.2	0.9	5.1
기타	0.2	0.2	0.0	0.0	0.9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함.

문화·여가활동에 불만족한 경우 그 이유로는 건강이나 체력이 부족해서(29.4%), 경제적 부담 때문에(28.0%)인 경우가 많았고, 이 외에 시간이 부족해서(10.6%),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9.9%), 교통 혼잡 및 이용 교통수단의 불편(8.5%), 의사소통의 어려움(5.1%) 등의 이유가 있었다. 교통 불편으로 인해 문화·여가활동이 불만족스러운 경우는 지체·뇌병변·안면장애 및 시각·청각·언어장애에서 높았고, 도우미가 없어서 불만족하는 경우(13.6%)와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12.6%)으로 불만족한다는 경우는 발달장애에서 높았다.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25.1%)라는 응답은 정신장애에서 높았고, 건강이나 체력의 문제는 내부 기관장애(53.5%)에서, 의사소통의 어려

움은 발달장애(22.8%), 시각·청각·언어(10.2%), 정신장애(8.2%)에서 높았다.

문화·예술 공연 관람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장애인의 26.6%는 비용의 적절성을 꼽았다. 공연 내용과 수준에 따라 관람한다는 경우는 22.9%, 접근성(가까움)을 고려하여 관람하는 경우는 20.9%, 교통 편의성을 고려하는 경우는 10.8%로 나타나 공연장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을 고려하는 경우가 30% 이상으로 높았다.

표 14. 문화·예술행사 관람 시 가장 중요한 기준

(단위: %)

	외부신체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 기관장애	전체 장애인
	지체·뇌병변·안면장애	시각·청각·언어장애	발달장애 (지적·자폐성)	정신장애		
내용 및 수준	22.8	22.2	23.3	22.6	26.5	22.9
비용의 적절성	27.5	25.7	21.6	25.4	29.3	26.6
참가자 유명도	4.0	4.3	1.9	3.2	5.1	3.9
장소의 유명도	0.8	0.8	0.3	-	0.4	0.7
교통 편의성	11.0	10.4	12.6	9.7	8.7	10.8
편의시설 구비 여부	8.5	8.9	10.4	6.5	7.1	8.6
전문가 의견, 언론 보도	1.2	1.6	1.6	2.3	2.7	1.5
주위 의견, 네티즌 의견	2.6	3.3	4.3	4.1	2.9	3.0
접근성(가까움)	20.5	22.0	22.0	23.6	17.0	20.9
기타	0.9	0.7	1.9	2.7	0.4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함.

#### 4. 정책적 함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만 65세 이상의 비율은 46.6%로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노령 인구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 변화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동약자를 포함하여 모든 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인 디자인,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Universal Design)이 보행자 환경, 대중교통 등뿐 아니라 생활환경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저상버스와 같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 유모차와 함께 이동하는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이동약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과 노력은 장애인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개인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부딪히는 장벽을 없애기 위한 개별적 노력과 더해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외출·이동과 문화·여가생활에서의 실태와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지난 한 달간 한 번도 외출하지 않은 장애인은 4.5%였는데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가 가장 컸지만 12%는 외출도우미의 부재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외출 시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것은 집 밖 활동에서 불편을 느끼는 이유로 외출 동반자가 없어서(26.9%)나 의사소통의 어려움(11.0%)을 꼽은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체적 이동 능력은 있으나 인지장애 혹은 돌발행동 등의 문제로 발달장애의 경우도 외출 동반자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응답(48.0%)이 높았다. 장애인의 약

44%는 버스나 지하철, 일반택시 등 대중교통을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79%는 버스·택시 이용 시나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 때문이라고 하여 대중교통에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대중교통에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노력으로는 대표적으로 저상버스 확대와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의 확대 및 서비스 정교화를 들 수 있다. 관련 부처는 현재 전국 버스의 22.4%를 저상버스로 운행하고 있는데(전국 7500대 운행), 향후 5년간 44%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6). 또한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2017년 기준 보급률이 103.3%로 운영 대수는 법정 기준을 충족한 상태이나 실제 이용자 만족도를 보면 차량 예약 및 배차에서 접수가 가장 낮고, 일부 지자체 조사 결과 (차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거절률이 40%에 이르는 등 불만 사항이 있어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실수요에 맞는 공급 기준 수준을 재설정하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국토교통부, 2016). 장애인콜택시는 수시 콜 대응형(On-Demand Call) 교통수단으로 신청, 예약, 배차 등의 과정에서 실시간 정보 제공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시스템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보화 기기 이용에 서툰 고령자도 친근하게 이용하고 시청각장애인도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하철, 버스 운행이 많은 대도시·중소도시 이

외의 대중교통 취약지<sup>4)</sup>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고려한 이동 편의 증진 방안 모색이 필요한데, 현재 대중교통 취약지 교통 방안으로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지역 저비용 택시(100원 택시) 운행 등이 도입, 시도되고 있다. 초기 차량 선택 등의 과정에서 장애인의 이용 가능 차량을 일정 비율 배치는 등 장애를 고려해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문화·여가활동은 의미 있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다. 현재 상영 중인 영화 중 특정 영화, 영화관에서 자막 해설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영화제 실시 등 시각·청각장애인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문화·예술 공연 관람을 위해 쏘는 기준은 경제적 비용, 공연 내용, 접근성(가까움, 교통 편리)으로, 이는 지역사회에 가깝고 쉽게 갈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 마련이 이상적임을 보여 준다. 최근 지역 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의 설립이 계획되고 있는데 ‘장애인과 함께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시설 설계, 프로그램 운영·기획 등을 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과 같이 마땅한 취미를 만들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경우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에서 연령별 경향

을 고려한 지원도 필요한데, 장애인 및 전체 인구의 문화·여가활동은 모두 10~20대에서 가장 높고, 50~60대에 걸쳐 감소하여 70대 이후 급감하는 경향을 보인다. 생애주기별 욕구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활력 있는 노년 생활 영위를 위한 문화·여가활동의 긍정적 역할을 고려한다면 고령 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영위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의 참정권은 권리 보장의 측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적기에 다양한 형태로 각 장애에 맞게 제공되어야 할 것인데, 점자 자료, 큰 글씨로 된 인쇄물 등뿐 아니라 인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 상태에 맞는 수준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투표 참여가 동일한 기회와 선택이 되어야 하며, 인지적 장애인의 투표에 대해서도 편견 없는 시선과 지원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대중교통 취약지를 전국 3만 6792개 행정리 중 버스 미운행 지역과 1일 3회 미만 운행 지역이라고 보면, 전체의 약 18.3%로 추산할 수 있다(강상욱, 서영욱, 2017).

---

## 참고문헌

- 강상욱, 서영욱. (2017). **교통취약지 공공형 택시 운행 활성화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 국토교통부. (2016. 12.). 제3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2017~2021).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희, 이연희, 오욱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등. (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2018. 9. 4. 인출.